

음식과 수형



민물의 응답, 다슬기

간장과 신장에 작용하여 대소변 원활
위통과 소화불량 치료
간의 열과 염증, 눈의 충혈과 통증에 좋다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폭염이 쏟아지고 있는 요즘에는 무력감을 느끼고 입맛까지도 없게 된다. 그 이유는 해가 뜬 시간이 길어 활동량이 많고 땀을 많이 흘리내 수분과 당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이다. 이럴 때에는 자연 그대로의 수분과 당분을 비롯해 각종 영양소가 풍부하게 든 제철 음식을 먹게 되면 원기가 회복되어 여름을 나기가 수월해진다.



다슬기에서 나오는 푸른색의 물은 혈액속의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미네랄로 간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 다만, 다슬기는 성질이 차가워 설사를 자주 하거나 아랫배가 차가운 사람은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한, 다슬기는 기생충 중 '폐흡충'의 숙주가 되기 때문에 날 것으로 먹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익혀 먹어야 한다. 다슬기는 체력을 회복하는 데 있어 최고의 식재료라 말할 수 있다. 찬 성질 때문에 따뜻한 성질의 부추와 잘 어울린다.

다슬기에는 다슬기 효능이 있다.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제철이 지나 상대적으로 효능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효능이 워낙 독특하기에 이번 호에서는 민물의 응답이라 불리는 다슬기에 대해 알아본다. 다슬기는 깨끗한 1급수에서만 서식하는 생물로서 다양한 아미노산의 함유량이 많아 간 기능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슬기 하면 간에 좋아서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으로 술 마신 다음 날 숙취 해소뿐만 아니라 다슬기의 효능은 다양한데 '동의보감'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물경이(다슬기의 방언)는 간장과 신장에 작용해 대소변을 원활하게 하고 위통과 소화불량을 치료하며 간의 열과 염증, 눈

2차 육종 1심 재판 때 품에 주님이 무죄로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운동하던 부친 공실 운동장이었는데 주님께서 흰 옷을 입으시고 혼자 앉아 계시어서 제가 "주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니 어떤 분의 말씀이 "우리가 비록 힘은 없지만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한 고로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님 가까이 가지 않고 주님께서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다 어떤 방으로 들어가시기에 우리도 가서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많은 사람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서 보니 큰 방에 사람 서너 명과 저뿐인 고로 마음이 섬뜩하여 잠에서 깨었습니다.

주님은 죄와 무관하니 죽지 않는 존재 2심 재판 때 주님이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갑작스런 보광 소식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이것은 아니다. 무슨 뜻이 있다.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믿기지 않는 보광의식이 지나갔습니다. 이긴자 구세주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씀과 실천들, 그리고 호흡을 잡으려야 잡을 수 없는 온전한 그 말씀, 우리의 이념과 생을 바꾸어 주는 가치관, 인간이 하나님이며 모든 만물이 신이라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또한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능력, 영모님이 말씀하지 못한 환물 위에 소사(素砂)라고 써여 있다는 말씀, 우리 스스로의 은혜체험들을 보아 틀림없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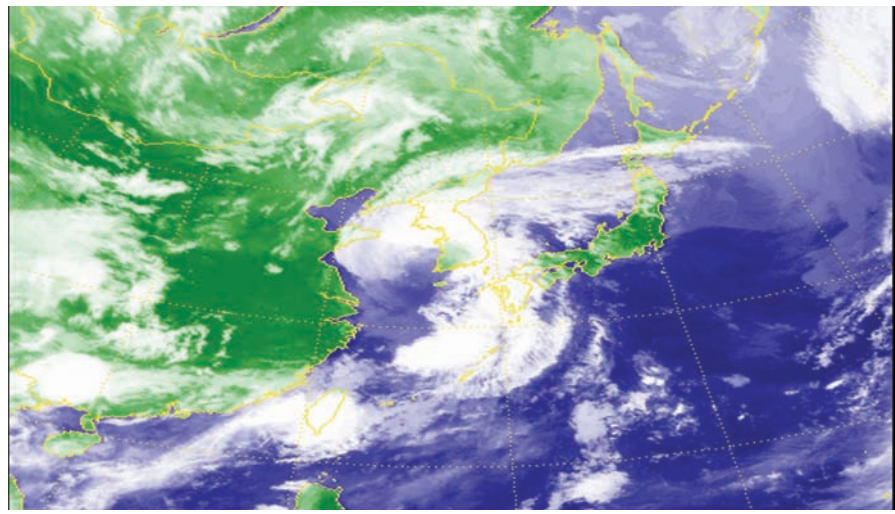
"공중권에 잡은 마귀를 때려죽이고 그 자리에 내가 있다. 현재 여기 있는 나는 분신이다." 또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이 마귀에게 일부러 삼킨바 됐다.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사람 몸을 입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왔다." "이긴신 하나님은 1초에도 수만 번 지구를 돌 수 있다." 이긴자 구세주께서 출현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약해서 마귀에게 사로 잡혔지만, 육종 가시기 전의 말씀에는 위의 말씀처럼 구세주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24년이 지났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됐구나. 이긴신 하나님은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을

일문 수기



마지막회 태풍이 불어오기에 주님을 새끼며 백멸소탕 기도를 하니 태풍이 죽어셨습니다



민들레 태풍(기상도 참조)은 한반도에 상륙하기 전에 소멸되었다

하니 주님은 죽음과 상관없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보광하시고 얼마 안 되어 태풍 민들레가 오는데 대형 태풍이라고 하니 모험하여 죽게 하니 끝장인 것이 지 하며 잠을 자는데 태풍이 불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잠이 깰 겁니다. 집이 날아 갈 것 같이 소리가 요란하여 무척 걱정을 많이 하였는데 순간 주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긴자의 신을 받았기 때문에 무당이 굿하는 데에 가서 백멸소탕 기도하면 마귀가 죽어 곳을 할 수 없다. 해 보이라. 내가 내 가지들에게 권능을 주었어. 써 먹어봐. 기도를 하면 마귀가 죽어.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옆에 같이 있어. 여러분들의 생명이 이 사람의 분신체야." 그러면 나 또한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서 권능을 받았고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니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즉, 동글게 돌아가는 태풍의 눈 한가운데에 주먹을 쥐고 무섭게 노려보시는 주님의 눈을 새겨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죽고 주님이 좌절하시어 태풍을 죽이는 심정으로 일어나지도 않고 백멸소탕 기도를 한참 동안 하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집을 삼키듯 불던 바람이 소리가 푹 끊어졌습니다.

'아,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서 비디오편을 틀어 놓고 태풍의 눈에다 주님의 무서운 눈을 새겨 열심히 기도하니 그렇게 요란하던 빗소리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어 태풍을 막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마귀 죽이는 기도를 했습니다. '태풍은 죽었다. 주님께서 죽여 주셨으니 조금 있다가 일기예보를 보면 알 거야.' 한편으로 두려웠지만 하나님 하시는 일에 기쁘고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곧 정전이 되었는데 밖으로 나가 보니 밀실 전체가 정전에서 되어 있었습니. 8시가 넘어 한전에서 전기를 고쳤지만 태풍이 죽은 것을 확인하고 일기에 일기예보를 보려고조차 하지 않았습니.

보광 후에도 계속 동행하시는 주님 옥수수가 모두 땅에 떨어져 있어서 일으켜 주는 일을 하고 그 누구한테도 맡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귀 공격을 받을까봐, 또 자신이 조금이라도 드러날까 봐. 그러나 우리 승리 제단 식구들은 다 같이 이긴 가지라 누구라도 기도하면 다 들어 주신다고 생각되니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전의 형제같이 생각되지 않고 위대하게 보이고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은 어려운 일이 생겨 '주님, 어찌 합니까? 주님께서 저의 사정을 아시니 길을 가르쳐 주시요. 도저히 이 사람과 저 사람 가운데 헤어지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꿈에 보이셨습니다. 박 사장님이 손수레에 아이를 몇 명 태우고 가는데 제가 뒤를 따라가고 주님이 제일 뒤에서 오시면서 옆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도 주님을 보고 따라 들어가 주님 뒤에 있는데 주님이 경상 위 의자에 앉아 계시는 것 같아 바라보려고 애를 썼는데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보이지 않아 찾아다니다 와서 다시 보니 아까 그 의자 위에 앉아 계셨는데 박 사장님이 수건으로 주님이 비를 맞은 것을 닦아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시더니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오는 거야?" 하시기에 "주님을 찾아다니다 왔어요." 하니 "나중에 등산할 때 차에 기름을 넣어야 하니 네가 말아서 해." 하시기에 "네." 하니 "배워야지." 하시는데 물어 아원 것 같아 "주님! 슈퍼에 가서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올까요." 하니 "아냐. 나한테 무한한 생명이 있어. 알지?" 하시며 엄지척을 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나는 운전할 줄 모르면서 "예"라고 대답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신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꿈을 많이 꾸는 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꿈은 보통 꿈과 다르게 선명하게 기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광하신 주님은 꿈에서 말씀하셨다시피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나를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사실 난 주님을 만나지 못했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오니 주님께 어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 고통, 땀과 눈물, 비웃음, 조롱 등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할 때 털털만큼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견디며 이겨나갔습니다.*

최종열(69세) / 본부제단

단지파가 곧 '융족'이며 주(周)나라를 세웠다

왕명(王明) 학자가 저술한 『중국 화하 변경과 문화민족』이라는 연구 서적을 통해서 서주(西周)의 성립에 중국 북서부의 융족(戎族)이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진호(716호, 8월 1일자) 3면 하단에 <단지파는 기원전 1248년에 동쪽으로 이주를 시작하였다>는 제하의 기사를 참조하면, 팔레스타인 소라 땅에서 수십만의 단지파 백성들이 동으로 이동하여 알타이산맥까지 와서 지금의 중국 북서부에서 우거하기 시작하던 때가 기원전 13세기 중반이다. 그곳에는 이미 알타이어를 사용하는 토착민들에 의해 카라스크(Karasak)문화가 번성하고 있었다. 중국 북서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아라타이(阿勒泰) 지구는 단지파 백성들이 알타이산맥 넘어 몽골초원으로 진출하는 길목이었다. 단지파 백성들이 알타이산맥 근교에서 기원전 13세기 중반부터 기원전 11세기 중반까지 약 2백 년간 우거하는 동안, 동쪽의 몽골초원으로 북쪽의 시베리아로 그리고 남동쪽의 중국 내륙으로 진출을 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국 화하쪽에 의해 융족으로 불리는 민족이 단지파 민족으로 추정되는데 그 근거는 융족 가운데 몽골초원으로 이동하여 견우 또는 흉노로 불림 받는 몽골인들에게 몽고반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단지파에게는 아이가 태어날 때 몽고반점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주나라 초기에 주족의 구성원은 희씨 성을 가진 자와 강씨 성을 가진 자로 이루어져 있다. 중국학자 호경영은 희(姬)와 강(姜)을 나눌 수 없고, 모두 융족(戎族)의 지류라고 보았다. 또한 중국학자 노연성은 희(姬)가 강(姜)에서 나왔으며 강성(姜姓) 부족은 서융(西戎) 또는 저강(저姜) 계통의 민족이라고 보았다. 기원전 12세기에 단지파 즉 융족이라고 불리는 강성(姜姓) 부족이 산둥성(山東省)의 태산 동북쪽에 있는 치박(淄博)까지 진출한 것으로 보인다. 나중에 그곳은 주나라 제후국으로 제나라로 흥기한다. 마찬가지로 기원전 12세기에 강성 부족에서 분화된 희성(姬姓) 부족이 아라타이(阿勒泰)에서 부원진으로 우무무지, 투르판, 허미를 거쳐 간수성(甘肅省)의 유원, 가옥관, 난주(蘭州), 그리고 섬서성 중부를 가로지르는 위수(渭水; 황

하의 지류) 이북지역까지 와서 이동을 멈추었다. 단지파의 희성(姬姓) 부족이 위수변의 기산(岐山)에서 계속해서 동진할 수 없었던 이유는 허난성의 정주(鄭州)에 멸망당한 하나라 백성들과 지배계층에 속한 상나라 백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단지파 민족은 이집트의 청동기 문화를 소유하고 있었고, 상나라 시대에 살고 있던 중국인들은 돌을 갈아 만든 마제석기(磨製石器)로 농사를 짓고 수렵하는 수준의 문화에 머물고 있었다. 또한 단지파 민족은 가난한 땅에서 강력한 블레셋 군대와 약 2백년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으며 그 결과 우수한 무기도 소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쟁보다 평화를 사랑하는 단지파 민족은 기산(岐山)에서 경수(涇水)와 위수(渭水)가 합쳐지는 곳으로 약간 이동하여 그곳 서안(西安)을 중심으로 앞으로 주(周)나라를 세울 기틀을 마련하였다.

주나라를 건국한 단지파 융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을 중국의 전설적인 삼황오제와 연계시킨 후 중국 본토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명분을 창출하였다

기원전 14세기경에 상나라 반경(殷墟)은 은하(殷墟; 하남성 안양)로 수도를 옮겼으며, 기원전



단지파 융족이 기산으로 내려가 주나라를 세움

11세기 중엽에 상나라 주왕(紂王)이 병사를 이끌고 서안의 강성(姜姓) 부족을 치려고 했다. 이에 희성 부족의 희발(姬發)이 산둥반도에 진출한 강

성 부족의 강태공(姜尚)과 연합하여 상나라의 수도 은(殷)을 정벌하고, 그 해(기원전 1046년) 희발은 주나라의 초대 군주 무왕(武王)으로 등극하고 그의 아버지 희창(姬昌)에게 문왕(文王)이라는 시호를 추존하였다. 그리고 무왕은 할아버지 고공단보(古公亶父)를 태왕(太王)으로 추종했다. 고공단보(古公亶父)의 부인이 강성(姜태공)과 같은 강씨(姜氏)였는데 이를 후세처럼 강씨 부인이라고 하지 않고 여(女)자 앞에 강자를 붙여 강녀(姜女)라고 하였다. 고공단보(古公亶父)는 주나라 개국의 기초를 닦은 자이며, 성은 희(姬)요 이름은 단보(亶父)이다. 원래 이름은 단(亶)인데, 주나라의 시조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를 붙여서 단보(亶父)라고 부른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고조선을 세운 단지파 사람들은 자신들의 조상 단군(檀君)이라는 이름 또한 원래 이름이 '단'인데, 후손들이 '단'이라고 부르기에 너무 단조롭고 너무 상스러우니가 거기에서 '임금 군(君)자를 붙여드리자!' 해서 '단군'이라 불렀다. 기원전 2세기 역사가 사마천은 사기(史記 권4 周本紀)에 주나라 사람들의 기원과 기산(岐山)에 정착하기 이전의 이동 과정을 기록해 놓았다. 여기에 따르면 주나라의 시조는 후직(后稷, 농업신이라는 의미)이며 그의 어머니 강원(姜原)은 제국의 부인이다. 후직은 어려서부터 곡식 심는 것을 좋아하였고 요(堯)임금 때 농사를 담당하는 농사(農師)가 되었다. 뒤에 하(夏)나라 왕들이 농업을 소홀히 하였기 때문에 후직의 아들은 관직을 잃었고 그래서 족인(族人)들을 이끌고 융족(戎狄) 지역으로 옮겨 갔다. 그 뒤에 족인들은 융족을 통해서 흩어져서 이주 오랏동안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우두머리 공류(公劉)가 재위할 때 와서야 그는 다시 족인들을 이끌고 농업에 종사하였다. 공류 이후 8대 동안 주나라 사람들은 다시 농사에 소홀하였다. 고공단보 때 와서야 다시 농업을 회복하였다. 또한 융족의 침입을 피하기 위하여 백성을 거느리고 기산 아래의 주원(周原)으로 옮겨갔다. 이때부터 주나라 사람들은 "융족의 풍속을 평화하고 성곽과 집을 짓고 음(邑)에서 거주하였다"고 기록하였다.

많은 역사학자는 이 기록의 대부분은 적어도 과거에 발생했던 역사적 사실이라고 여긴다. 역사학자들이 이에 대하여 역사 지리를 많이 고증해 놓았다. 그러나 '공몽 기원'은 사람들의 응집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 종족이나 다른 종족의 기원을 창조하거나 허구로 꾸미거나 수정하기까지 한다(Clifford Geertz, pp. 261~262; Charles). 따라서 위에 언급한 사기 주본기의 이야기가 역사적 진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융 또는 서융(西戎)은 춘추전국시대에 화하 민족이 자기 종족이 아닌 종족들을 불렀던 호칭이었다. 그렇지만 주나라 초기 또는 선주(先周) 시기부터 '융'이 주나라 사람들과 구별되는 아반민족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융(戎)'의 글자 구성 [갑(甲)과 창(戈)의 두 부분으로 구성됨]과 함께 융공(戎工)·융병(戎兵) 같은 용법에서 보면 '융' 글자의 원래 뜻은 '병기(兵器)' 또는 군대와 관련된 사람이었을 것이다. 한때 허신(許慎)은 설문해자(說文解字)에서 융(戎) 글자를 '병(兵)' 곧 병기라고 해석하였다. '융'을 '아반적인 이민족 사람'이라고 이해한 것은 분명히 나중에 중화사상에 의해 생긴 파생적 의미이다. 단지파 융족과 주나라 문화의 동질성 일주서(逸周書)의 기록을 보면 무왕(武王)이 상나라를 멸망시켰을 때 '경려(輕呂)로 승리 의식을 치렀다고 한다. 학자들의 고증을 따르면 경려는 '경로도(徑路刀)'이며 북방 민족 사이에서 유행했고 종교와 관련 있는 유물이라고 하는데, 고고학에서는 '북방청동기문화' 계통에 속하는 청동칼이다. 희성(姬姓)이 주나라 사람들의 핵심 종족이었고 강성(姜姓)은 주나라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인적이자 동맹이었는데도 서주시기와 춘추시기에 이 두 큰 종족들의 일부 하위종족들이 오히려 오랑캐라는 의미로 '융'이라고 불렀다는 것이다. 주나라 건국 초기 무왕 때의 장례풍속은 성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례풍속과 똑같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후세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자를 동굴이나 평지에 묻는 것으로 끝냈다. 그러므로 서주 초기에 무왕은 중국 본토의 상나라 왕족들의 묘실에 노예들을 순장하는 장례



풍속을 꺼렸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지파 융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등이 지식의 대가 끊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장자상속을 중시한 것과 같이, 서주(西周)시대의 왕들도 왕위의 적자(嫡子) 계승을 중시하였다. 이스라엘 족속 단지파 사람들은 천손민족이라는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주나라 왕족들도 그를 스스로 하늘로부터 명을 받은 천자(天子)라고 하였다. 그리고 주무왕 희발은 상제(上帝) 하나님으로부터 천명(天命)을 받아 상나라를 멸(滅)하였다고 한다. 이밖에 배를 뜻하는 '艦(艦)'이라는 한자 속에는 대홍수 때에 노아의 여덟(八) 식구(食口)가 방주(舟)를 타고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이 배 '艦(艦)'의 한자가 주나라 때에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이는 주나라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단지파 서융 사람들과 혈연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다. 또한 주나라의 국명인 두루 '주(周)'자의 서주시대 초기의 금문이 이스라엘 대제사장 보좌의 예복과 흉패와 닮았다(사진 참조).*

박태선 기자 / 고조선역사 연구가